

### 공동체 소식

#### 사순시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재의 수요일에 머리에 재를 받으며 사순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찰과 회개의 때, 은혜로운 사순시기입니다. **자선**은 믿음을 낳고, **기도**는 사랑을 가르치고, **단식**은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게 합니다. 금육(금요일)과 단식(재의 수요일, 성금요일) 규정을 지키며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 아름다운 사순시기를 보냅니다.

-고해성사는 미사전에 드립니다.(합동판공성사 없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구역반모임을 통해 전달된 라이스보울(CRS Rice Bowl)을 하루 \$1씩 40일간 모으셔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5일)에 봉헌 바랍니다. Rice Bowl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2019 Annual Contribution Letter 발급

-1일(일) 주일 미사 후 식당

#### 흑인과 인디언 선교를 위한 2차헌금

-8일(일) : 흑인과 인디언 선교를 위한 2차헌금(Black and Indian Missions)은 교구들에 맞게 주어져 미국 내 흑인과 아메리카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복음화(교리교육과 학교 교육 지원, 신앙공동체 형성과 행사 지원, 사제 양성)를 위해 쓰일 것입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 전례부 회의

-8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Daylight Saving Time 시작

-3월 8일(일) (미사시간 확인바랍니다)

#### 신심미사 안내

-사순/부활시기는 신심미사가 없습니다 (미사총지침 373-376항)

####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작성방법은 반모임에서 확인바랍니다**)

####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 3월 14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135th TumStyles Thrift Store

-3월 8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 GUIDELINES FOR THE FLU SEASON AND THE SACRED LITURGY

-게시판 및 본당 홈페이지 참조

####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3월 구역모임 일정

-1구역: 3/14(토) 7시, 조지연 마리아 가정

-2구역: 3/13(금) 7시, 김정원 베드로 가정

-3구역: 3/27(금) 7시, 홍순익 마르티노 가정

-4구역 1반: 3/28(토) 7시, 강승호 아오스딩 가정

-4구역 2반: 3/27(금) 7시, 김동술 세례자 요한 가정

-구역(반)장 모임: 3/29 (주일) 1시, 교육관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 서는 기다리십니다.

-성당/지하청소 : 2구역, 4구역 2반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115	210	166	118
차 주	123	219	174	119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 아녜스	차호섭 요셉	조지연 마리아
차 주	김주연 세실리아	차상욱 펠릭스	송진희 모니카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강윤후 그레고리오 강미정 클라우디아
차 주	김정원 안젤라	김하울 루카 김가온 토마스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우영 가브리엘, 김동술 요한
차 주	감영진 라파엘, 차상욱 펠릭스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말자 세실리아, 박계숙 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박영숙 비리짓다, 김수연 율리안나
차 주	문문주 엘리사벳, 장유정 마리스텔라, 송진희 모니카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인간 본성이 원죄에 물들어 나약해졌음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하느님 말씀의 사순 시기의 여정에 나아가게 하시어,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러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합니다.

### 그림 묵상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종을 들었다. (마태 4,10-11)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 광야에서처럼 최후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로 유혹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바오로는 말합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팔수도회

제 1 독 서 : 창세기, 2,7-9. 3,1-7 <사람의 창조와 원조들의 죄>

화 답 송 : ◎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

제 2 독 서 : 로마서 5,12-19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 음 : 마태오 4,1-11 <예수님께서는 사십 일을 단식하시고 유혹을 받으신다.>

# 생명의 말씀

##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한 해의 전례력은 '구세주의 탄생'과 그분의 '수난과 부활'이라는 구세사의 가장 정점을 이루는 두 사건을 축으로 성탄 시기와 부활 시기가 중심에 자리하고, 그 시기를 잘 준비하기 위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가 각각의 시기 앞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일상의 연중 시기로 구성됩니다. 전례력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교회 달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들이고자 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 표현 통로'입니다. 그 안에는 설혹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질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시기를 통과하면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만나도록 교회는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난 재의 수요일, 이마에 재를 바르며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창세 3,19 참조)는 말씀을 들으며 사순 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세의 직접적인 감각 세계 안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잊고 있던 이승 삶의 시작과 마침 지점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줍니다. 전례력으로 사순 시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와 보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느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다시 정위시키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사순 시기는 보속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세상 안에 피치 못하게 존재하는 삶의 부정적인 체험들, 예컨대 죽음, 질병, 고통, 실패, 거부, 좌절 등의 숨은 의미도 다시 생

각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 영원한 실패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 승리로 가는 과정이었듯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여러 모습의 부정적인 체험들도 우리를 '실패자'로 남게 하는 불운한 운명의 무게가 아니라, 그 부정적 체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만나는 숨은 하느님의 초대장임을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례에서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공생황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간 단식하시며 악마의 유혹 앞에 서심으로써 우리 인간과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앞서 겪으신 모습을 들려줍니다. 이는 첫 번째 독서로 들은 창세기의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금령을 어기고 불순명으로 죄를 짓는 모습과 대조되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여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훗날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명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될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며 우리도, 먼지에서 난 우리네 삶 - 하느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존재어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존재조차 없었을 우리네 삶이 궁극적으로 돌아갈 지점을 묵상해 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고통과 시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 사랑의 손길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을 사용한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지역의 전통이나 문화에 어울리지 않으면 주교회의가 사도좌의 동의를 얻어 대신할 표지를 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40항)

따라서 한국에서 '장궤'란 단어는 주로 '양 무릎을 꿇는 자세'를 일컫는다. 미사 중 신자들은 성체와 성혈의 축성 때 무릎을 꿇는다. 「미사 경본 총지침」은 "건강 문제나 자리가 좁거나 사람인 너무 많거나 또는 다른 합당한 이유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성체 성혈 축성 때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축성 때 무릎을 꿇지 않는 이들은 축성 뒤 사제가 무릎을 꿇을 때에 깊은 절을 해야 한다"(43항)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미사 중 감사기도 동안 장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 중이 아니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는 장궤는 기도 자세의 기본이다. 예수도 수난 전 겹세마니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루카 22,41)했다. 평소에도 하느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장궤를 하며 기도해보면 어떨까.

가톨릭신문

# 생활 속 영성 이야기

## "하느님 아버지! 손잡고 계셔주세요"

매 순간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를 수 있었음을... 남편 때문에 힘들겠다고 주위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진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몸이 불편한 남편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며 온전히 의탁하도록 이끄심을 눈물로 회개하며 알게 되었다

나는 남편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부산 문현본당 셀(Cell) 친구였다.

2년 전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져 뇌수술을 했고 수술 후 왼쪽 편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몸이 성해도 마음이 지옥인 것 보다, 몸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천국 아니겠냐"며 "주님께서 뜻이 있어 늙히셨고 주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고 봉헌하자"며 두 손을 잡았다.

나는 정말 감사했다. 돈 번다고 미사 참례도 잘하지 않던 남편이었기에 이 시련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우뚝 서기를 바랐다. 분명 설 수 있음을 확신했기에 "남편 요한 세례자를 살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하는 기도 외에는 생각나지 않았다.

남편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고 본인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렇게 지내는 남편을 보면서 '과연 나도 이런 상황에서 남편처럼 모든 것을 주님에게 의탁하고 불편한 내 몸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하고 묵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고 여러 곳의 병원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차츰 단단해지기도 하고 홀로서기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우리 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하느님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것이 없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처음 겪게 되는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하느님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삶의 끈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예민해 진 남편을 볼 때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가도 '꾸르실료 봉사를 하면서 처음 보는 참가자에게도 3박 4일을 웃음으로 대하면서 몸이 불편한 남편에게 웃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편을 예수님 대하듯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렇듯 나약한 우리 부부이기에 하느님께 오롯이 의탁하면

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바보같이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다.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함을... 주위 사람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겠다고, 고생한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진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나 부끄러워 눈물로 나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다.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무장시키고 계심을...



나의 필요 없는 힘을 빼시기 위해, 그 힘을 빼기 위한 도구로 남편인 요한 세례자를 선택하신 주님의 뜻을 회개의 눈물로 깨닫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동안 해 온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를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금은 순간순간을 주님께 봉헌하고 의탁하고 있다.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운동 중인 남편과 유학 중인 딸과 직장 관련된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이렇게 평화롭고 든든하고 기쁘다. 내가 웃으면 병원에 있는 남편도 힘이 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헤해 웃는다. 신이 나서 출근하는 발걸음도 가볍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머플러를 퐁퐁 여미며 고개 들어 하늘을 보면서 속삭여도 본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제 손 꼭 잡아주세요. 헤해."

이성에 서화데레사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부회장